전남도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인재한마당 대회.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인재 한 명 한 명을 직접 소개하고 발굴 과정 영상을 틀어 호평을 받았다. 〈전남도 제공〉

미래 주도할 새천년 전남 인재 99명 숨은 보석 발굴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과 함께 꿈꾸고 성장할 으뜸인재' 육성
지역 기여 선순환 구조·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속 발전

전남도는 올해 코로나 19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전남 각지를 찾아가 숨은 인재를 발굴해냈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업, 교육 등을 이유로 떠나는 청년들의 마음에 '전남'을 심어주고, 언젠가 전남의 미래가 되기를 바라며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역과 함께 꿈꾸고 성장할 으뜸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이 프로젝트는 전남도 민선 7기 브랜드 시책으로 거듭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인재를 찾아내 그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전남도내 학부모, 학교, 학원 등의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만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학교 밖 아이들까지 문을 두드렸다.

서류를 접수해 심사하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숨은 인재 발굴하는 대회를 개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미래리더에서는 이공계를 비롯 농수산, 경제경영 등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응시 가능하고, 예체능리더는 음악과 미술, 무용, 체육 분야를 포함했다. 중·고·대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14~24세)도 참여시켰고, 해당분야 수상경력이 없더라도 그동안 활동 실적과 추천서 등만 첨부해도 신청접수가 가능해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무려 786명이 신청해 3차례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99명의 으뜸인재가 선발됐다. 서류심사(1차)와 실기 및 심층면접(2차) 등을 거쳐 선발된 인재들은 '전남스타200인'으로 선정됐으며, 재능계발비(연간 대학생 600만원, 고교생 500만원, 중학생 300만원)를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됐다.

지난 11월 11일 전남도는 올해 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의 결실을 맺을 '2020년 새천년 으뜸인재 한마당' 행사를 갖기도 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개최한 '전남도 새천년 으뜸인재 발굴대회'에서 선발된 99명 인재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인재 발굴 전 과정을 보여주는 '100일간의 대장정' 영상과 함께 으뜸인재 99명 모두를 일일이 소개했다. 도청 내에 이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인재 양성과 모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참석한 학부모, 인재, 교육기관 관계자 등 감동을 안겼다.

전남도는 민선 7기 브랜드 시책인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자원봉사와 지역바로알기 교육,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제1회 숨은인재 발굴대회'를 명실상부한 인재올림픽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전남의 시도에 지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먼저 (주)보성이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1억원의 장학기금을 건넸으며, KT&G전남본부 임직원들도 성금 1000만원을 모아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기탁했다. 지난 연말에는 지역 최대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앞으로 2년간 25억원씩 모두 50억원의 장학기금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내기로 해 화제가 됐다.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금액이다. 지난 2019년 2억8000여만원에 불과하던 기탁금은 올해 전남개발공사 25억원을 포함하면서 4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미래인재는 지역민의 정성과 성원으로 키워가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전남 스타 200인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과학예체능 우수학생 53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지난 5월에는 '전라남도 제1기 도비유학생' 3명에게 으뜸인재 증서를 수여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블루이코노미·자연과학·마이스터·예체능 등
미래 지역발전에 대한 애착…다양한 분야 분포

인재 99명은 누구

전남도가 새롭게 발굴한 인재 99명 가운데 대학생이 35명, 고등학생이 47명, 중학생이 14명의 분포를 보였다. 학교밖 인재는 3명이 뽑혔다. 786명 가운데 전남 출신이면서 서울대, 포항공대 등은 물론 과학고 재학생들이 대거 신청했지만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가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신청 학생과 학부모는 탈락 사유를 되묻는 등 반발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역민의 혈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역 발전과 미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재능만 뛰어나다고 해서 지역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 새천년 프로젝트인 '블루이코노미' 분야에서는 건축, 농업, 바이오, 생명공학, 에너지공학 등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6명, 고등학생 5명, 중학생 1명이 선발됐다. 목포영흥중 2년 조예람양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중학생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공학' 분야에서는 복합재료, 소프트웨어, 우주공학, 전자공학, 전자전기, 기계공학, 정보보안, 화학공학 등 대학생 7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등이 명단에 들었다. 인공지능 융합연구자를 꿈꾸며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 제작하겠다는 순천 팔마중 1년 김주왕군이 주목을 받았다. 우주공학자가 꿈인 서울대 기계공학과 1년 이혜성씨는 지역청소년들을 위해 수학 멘토링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간호, 기초과학, 수학, 약학, 의학, 수학 등 대학생 5명, 고등학생 3명, 중학생 1명 등이,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경영, 교육, 문예, 사회복지, 심리학, 영어교육, 외교, 일본어, 중국어 등 대학생 6명, 고등학생 3명, 학교밖 인재 1명 등이 각각 선정됐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문예를 전공하는 인재로 선발된 황희령양(18)은 학교 밖 인재로, 사회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글로써 목포청소년문학 백일장대회 대상,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 고등부 동상 등을 받았으며, 소설가를 꿈꾸고 있다.

'마이스터' 분야에서는 CNC/선반, 농업, 드론, 모바일로보스틱스, 미용, 요리 등을 전공하는 고등학생 6명이, '국악/실용음악' 분야에서는 판소리, 가야금병창, 일렉트릭기타, 드럼, 재즈피아노, 보컬, 작곡 등을 배우는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3명, 학교밖 인재 2명 등이 전남 인재에 포함됐다.

'무용/연기' 분야에서는 발레, 배우, 실용댄스, 실용무용, 연극, 플라멩코, 한국무용 등을 전공한 대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등이, '클래식' 분야에서는 더블베이스, 바이올린, 비올라, 성악, 플룻, 피아노, 호른 등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 4명, 고등학생 5명, 중학생 3명 등이 각각 전남도의 지원을 받는다. '미술' 분야에서는 디자인, 무대연출, 산업디자인, 애니메이션, 입체조형, 조소, 한국화 등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등이, '체육' 분야에서는 사격, 수영, 양궁, 역도, 육상, 인라인롤러, 축구, 탁구, 태권도, 펜싱 등을 연습중인 대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중학생 2명 등이 각각 전남 인재가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지난 5월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도비유학생 3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비싼 등록금 걱정 없이 미국 유명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게 됐다.